

대규모 신규 사업 발굴 매진

남원시, 국가예산 확보 총력

남원시가 5월 말 정부부처 편성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는 20일 세종 정부청사 부처 공무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역 현안을 설명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도 세종시를 방문해 남원시와 남공회(남원출신 향우 공무원 모임) 회원 20여명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을 가졌다.

남원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은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261억)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297억)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480

억) 등이다. 또, 생활SOC사업으로 ▲지리산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45억) ▲지리산권 복합문화공간 조성(80억)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70억) ▲승화원 화장로 시설개선(65억)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과 ▲가야고분군 종합정비 사업(240억) ▲남원읍성 복원정비(330억)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174억) 등 관광객 유치 개발사업이 있다.

남원시는 국가예산 중 200여억원이 지방에 이양 되었음에도 지난해 보다 100억원 상당이 증가한 1,230억원의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비롯한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농촌융수

개발사업 등 규모 있는 신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각 부처는 5월 말 부처 예산안을 마무리해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각 부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며, 남원시는 중앙부처의 국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시의 주요사업들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정치권과 지속적인 자리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소고춤 공연 사진.

한국 전통문화의 위상 널리 알린다

국립민속국악원, 이탈리아 한국주간 문화행사 참여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늘 저녁 7시 이탈리아 토리노 시청광장과 24일 저녁 8시30분 이탈리아 토리노 페아프로 피콜로 레조 극장에서 2019 한국주간 문화행사에서 한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천

년의 소리, 천년의 품짓'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기악단과 무용단 등 16명의 단원과 제작진을 포함해 전체 20명이 참여해 민속악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내용으로는 승무, 기악합주, 시나위, 태평무, 기악병주(거문고·해금), 사물놀이 소고와 소고춤 등 총 5개 작품을 선보인다.

왕기석 원장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해외공연 시장의 국악 진출 시도를 적극 확대해 국악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한국 전통문화 우수성을 소개하고 한국 문화 이해와 한류의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건강장수연구소, 디지털 클래스 교육과정 성료

순창건강장수연구소(소장 설추호)가 21일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한 8주간의 디지털 클래스 교육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디지털 클래스 교육 과정은 군이 지역특화지역을 활용한 창업 프로그램으로, 관내 지역민의 창업 욕구를 높이고자 마이스(MICE)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군은 서울 '브랜디푸' 디지털 카페를 운영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임현구 파티셰를 강사로 초청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난달 2일, 풍당소플라 디지털 만들기 첫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순창건강장수연구소내 식문화실습관에서 약 3시간 가량 진행했다.

프랑스 디저트는 현재 20~30대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도시내 디지털 카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이번 교육에 참석한 참가생들

은 도시에 나가야만 들을 수 있던 교육과정을 관내에서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날 교육을 수료한 김모씨(37)는 "프랑스 디저트를 그 동안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으로 젊은 여성층을 타겟으로 한 프랑스 디저트 카페가 순창군에 생겨나 창업으로 실제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지역 매아리

남원시, 남원가야 현장교육 실시

남원시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먼저 남원가야 알기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티벳고원으로 불리는 운봉고원에는 고분군, 제철유적, 산성, 봉수 등 200개소가 넘는 남원가야의 유적이 산재해 있다.

특히, 유곡리와 두라리 고분군은 2018년 호남지방에서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과 함께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선정됐다.

21일 남원시 5·6급 공직자들은 세계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남원가야의 발자취를 더듬는 현장탐방 교육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남원가야는 고령·김해 가야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에 참가한 공직자 40여명은 곡장군(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소장) 교수로부터 1500여년전 운봉고원 일대에서 화려한 철기문화를 꽃피웠던 남원가야의 역사적 위상과 역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운봉을 장교리 말무덤, 유곡리·두라리 고분군, 월산리 고분군, 백두대간 치재 봉수왕국 전복가야터를 방문해 남원가야유적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남원시는 매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남원가야유적 탐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야유적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KBS 사랑나눔 행사가 내일 임실군민체육회관에서 열린다.

건강부터 생활까지 '척척'

내일 임실군민체육회관에서 KBS사랑나눔 행사 개최

KBS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랑나눔 행사'가 임실에서 열린다.

군에 따르면 임실군민과 함께하는 KBS 사랑나눔 행사가 23일 군민체육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 및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올해에는 임실군을 찾아온다.

행사를 주최한 KBS 전주방송총국을 비롯하여 임실군, 대한적십자전북지사, 우석대학교 한방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평화미주치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주비전대학교, 임실군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봉사단체가 참여한다.

한방진료부터 치과진료 등 분야별 의료진료는 물론 피부관리와 이미용, 장수사진, 생활법률 자문, 중식봉사까지 다양한 건강증진 및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은 한방진료 및 처방, 전북대학교병원은 내과, 재활의학과, 안과 진료, 평화미주치과의 치과진료,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동맥경화, 혈액검사 등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전주 비전대학교에서의 피부관리, 이미용, 장수사진 등의 맞춤형 봉사활동과 대한적십자 전북지사의 500인본 중식봉사는 어르신들의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에 앞선 식전행사로는 임실 필봉농약전수회의 공연도 열린다.

벌써부터 지역 어르신들은 사랑나눔행사에 대한 큰 기대감을 보이며, 행사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어르신은 "전에 왔을때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기다렸다"며 "건강도 챙겨주고, 피부랑 머리까지도 예쁘게 해준다고 해서 올해도 꼭 가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이번 사랑나눔행사는 건강부터 생활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부스가 운영돼 군민의 아픈 곳을 치료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나서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21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단속반을 편성,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재배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과 밀매자 및 사용자이며, 특히, 가족사육능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

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밀경작 행위, 밀매 사용자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족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진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을지태극연습 총력

임실군은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2019년 을지태극연습' 준비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점검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김형우 부군수 주재로 국장, 실과소장 및 유관기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을지태극연습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실있는 훈련이 되고자 마련됐으며, 을지태극연습 일정 및 각 부서별 사전점검과 준비사항, 사태별 주요 조치계획, 지난해 문제점과 대책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을지태극연습은 변화된 안보환경을 고려한 기존 전시대비연습에 테러·재난 등 포괄 안보 개념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국가적 대형복합위기 역량 강화 및 국가총력전 수행태세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연습은 '국가위기대응연습'의 정무원습과 국가 총력전 차원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전시대비연습'의 군사연습을 포함해 실시된다. /임실=진홍영 기자